

# 2030 젊은층 文, 60세 이상 노년층 安...물밑 대혼전

## 광주·전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호남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호남 민심은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출향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동안 대선에서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은 그동안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해 4·13 총선에서 정치지형이 민주당 ‘일당독점’이 깨지면서 호남 민심도 돌로 갈랐다.

대선이 코 앞이지만,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지난 3일 이후부터 광주·전남 판세도 그야말로 ‘깜깜이’다.

### 30대 “준비된 후보 뽑겠다”

### 60대 “安후보가 더 정직”

### 전략투표 이루어질지 관심

3일 이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호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걸어서 국민속으로’의 ‘뚜박이 유세’가 바다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막판 추격도 만만치 않아 여전히 대혼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젊은 층들은 문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반면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보수층은 안 후보에게 결집하는 모습이다.

‘장미대선’을 불렀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따라 ‘적폐청산’을 외치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문 후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30대 사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개적으로 지지후보 밝히기를 꺼리는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정치성향을 거리낌없이 표출했다. 지난 5일 담양군 담양읍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박영우(38)씨는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겠다. 무엇보다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문 후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 박씨는 문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도 후보선정에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선 보수에서 진보 후보로 노선을 갈아타려는 이들도 있었다. 같은 날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길에서 만난 인테리어업자 정승현(40)씨는 “최근 TV토론회를 본 뒤 문 후보 쪽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도·보수 성향 지지층의 선택은 이번 대선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장년과 노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표심 결집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아직도 광주·전남지역 일부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반문 정서’와 최근 북핵위기가 불러온 안보 불안감 등이 이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7일 광주공원 앞길에서 만난 김정수(69·가명)씨는 “안 후보가 더 정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아직도 주변 친구들과 사이에선 문 후보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호남에) 해준 게 뭐가 있는냐는 얘기도 인데, 안보에 대한 인식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약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담양에서 채소 농사를 짓는 이정석(71·가명)씨는 “노인당 회원 중 절반이 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라면서 “문 후보가 당선되면 개성공단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시골 청년들도 먹고 살기 힘들

어 다들 고향을 등지고 있다. 이북청년들 먼저 돕겠다는 것이냐”라고 반감을 들어냈다.

당선될 사람에게 표를 밀어주는 전략투표보다는 원래 지지하던 후보를 찍겠다는 소신투표 움직임도 보인다.

주부 박희연(여·40)씨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며 “안보와 경제에 해박하고 다른 후보들과 달리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점이 좋다”고 설명했다.

회사원 채윤미(여·39)씨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어려운 나라살림을 잘 꾸려갈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선문학회 공동취재단=광주일보 최권필·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송정역 뜨거운 열기 7일 오후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세에서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충장로 지지자 환호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무등빌딩 앞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유세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 文 결집세에 安 숨가쁜 추격전...전략투표·소신투표 놓고 고심

### 전북

‘5·9 장미대선’ 결승점을 눈 앞에 전박 유권자들은 국민통합과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 주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전북 지역 곳곳의 민심을 들어보니 이번 투표는 선택지가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당선 가능성 등을 놓고, ‘미워도 다시 한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유권자도 여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찍겠다는 이들도 상당했다.

### “文이 적폐청산 적임자”

### “이번엔 국민의당에 희망”

### 沈·劉 선호 지지자도 상당

문제는 막판 표심이다. 될 사람을 밀어주는 전략적 투표와 소신투표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심 후보와 유 후보 지지자는 문 후보나 안 후보를 놓고 함께 저울질 중이었다. 사표 방지 심리가 어느정도 작동하느냐가 이들 두 후보의 전북지역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문 후보

지지층은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을 바라며 더욱 단단해진 것으로 보였다. 공인노무사 윤진식(53·전주)씨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과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통령은 문재인 뿐이다”며 “국정경험과 바른 이미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통합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치강사 오영근(37·전주)씨도 “문 후보가 여러 의혹이나 네거티브에 의연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상처받고 소외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이태신(35·전주)씨는 “처음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안철수 후보에게

마음이 쏠렸는데, TV토론회를 보고 실망했다”며 “안 후보 주위로 몰리는 사람들도 변화를 바라는 젊은세대의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기성 정치문화와 거리를 뒀다는 점에서, 또 참여정부에 대한 서운함으로 안 후보에게 기대를 걸었다.

취업준비생 문호철(28·김제)씨는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정책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안 후보는 기성 정치문화의 물이 덜 든 것처럼 보이고, 비리 같은 것은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에서 퇴임한 김현철(70·전주)씨는 “민주당은 과거 참여정부때 호남을 차별

했다”며 “이번에는 국민의당에 희망을 걸어보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안 후보가 다른 정치인보다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TV토론회와 최근의 바른정당 사태를 보면서 지지후보를 굳힌 이들도 있었다.

직장인 유아름(30·익산)씨는 “찍을 사람이 없어 고민했는데 TV토론회를 보고 심상정 후보를 찍기로 결심했다”며 “합리적이고 시원시원한 점이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나쁜 기억을 지울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실상의 남녀평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직장인 이도완(43·전주)씨는 “이젠 세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집권당이 없어야

아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의미에서 심 후보를 찍을 생각”이라며 “비등한 세력을 가진 각 정당들이 정책을 놓고 서로 대결하며 보완해 갈 때 나라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심 후보가 득표를 15%를 넘겨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가정주부 강경민(69·전주)씨는 “문 후보고 안 후보고 모두 그 나름 그 밥”이라며 “유승민 후보를 찍을 생각”이라고 털어놓았다. “누가 되던 다 똑같은데 이왕이면 똑똑해보이면서 선해보이는 유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지방선문학회 공동취재단 전북일보=이강모·최영국 기자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